

[한국측질문]

Q1 제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(A I) 에 대하여

제 4 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, 세무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?

A .

기본적으로 AI 는 세리사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합니다. 역사를 뒤돌아 보면, 세리사가 사용하는 도구는 주판, 탁상용기기, 컴퓨터, 스마트폰으로 변화하여 왔으며, AI 도 그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.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는 AI 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

또한, AI 가 세리사를 대신한다는 지적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례로써 세리사의 업무는 「법령해석」 「사실인정」 「적용」 이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만, 예를 들면 「호텔이용료」 는 여비교통비, 교제비, 회의비, 복리후생비로 될 수 있는 것과 같이, 같은 호텔이용료라도 계정과목은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. AI 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데이터나 경험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하며 이러한 「사실인정」 을 전부 AI 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 그래서 AI 가 보급되어도 세리사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의 필요성·중요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.

그렇지만, AI 가 회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식자로부터 여러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, 세리사업계에서도 그 영향은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, 낙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. 일본세리사연합회에서는 AI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, 그 영향에 대하여 각 담당부서에서도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

논의에서는, 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.

- 무상독점인 세리사업무는 세무대리, 세무서류작성, 세무상담으로 되어 있으나 AI 는 세무서류작성, 세무상담에 활용되리라 예상된다.
- AI 에 의한 세무서류작성이란 이용자 본인이 일반적인 회계소프트와 같은 수단으로서 AI 를 이용하여 세무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며 세리사법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다.
- AI 에 의한 세무상담이란 이용자 본인이 서적이나 세법을 참고하는 것과 같은 수단으로서 AI 를 이용하는 것이며 세리사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.
- 약질적인 AI 제공업체나 저질적인 AI 를 제공하는 업자 등에 대하여, 행정과 연계하여 이에 대응하리라 예상된다.
- AI 로 고문거래처에서 스스로 기장을 하는, 이른바 기장대행업무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 AI 로 인해 세리사사무소의 효율화가 이루어져 단순작업으로부터 회계 컨설팅 등에 의한 고도의 작업자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
- 대규모의 세리사법인 등이 AI 로, 세무상담서비스를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 하여 고문거래처를 획득하는 광고수단으로의 활용이 예상 된다.
- 납세자가 세리사사무소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이 고도화 · 복잡화하므로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AI 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세리사사무소의 경영의 효율화 를 꾀할 것으로 예상 된다.
- 일본세리사연합회서는 새로운 기술을 부정할 이유는 없고 세리사 각자는 새로운 기술,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고문거래처에게 제안,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본세리사연합회 · 세리사회에서 세리사사무소에 AI 도입이나 회계컨설팅 등에 관한 연수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※인용

일본세리사연합회 · 한국세무사회(2019 년 1 월 31 일)「제 22 회 정기간담회 질문 사항 및 회답」(3-6)